

# 이제 노동자가 통일에 나서야 합니다.

**이창복**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남과 북 레이에 흩어져 살고 있는 7천만 거례의 구성원은 5천년 동안 단일한 언어와 빛줄을 이어온 단일민족입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한 조상의 자손으로 같은 풍습을 지니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남과 북이 갈라져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가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중동 지역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전쟁의 위협이 높은 곳으로서 말입니다. 한 형제라면 서로 우애있게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날마다 휴전선에서 총질이나 하고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 으르렁대며 살아야 합니까? 통일운동은 이렇게 민족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정상적인 것으로 바꾸려는 소박한 동포애로부터 출발합니다.

지금 북에 살고 있는 동포들은 몇 년간의 자연재해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 우리 살분이가 아니고 캐르만족이나 흑인들이었다면 우리의 관심은 지금처럼 높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굶주리고 있는 이들이 우리의 형제자매들이기에 많은 남녘 사람들이 애달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북의 동포들이 대규모로 굶어죽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너도나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런 민족애의 발로로 많은 민간단체들이 작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을 손쉽게 모금할 수 있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아주 머니부터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고사리 손까지 많은 사람들이 혼례히 아무 조건 없이 북녘동포돕기 모금에 응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끊달린 북한공산집단을 미

**이재우** 불달란 북한공산집단을 미워하리라고 교육받아도 어쩔 수 없어

**유관** 가슴 깊이에는 뜨거운 핏줄이 서로 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관** 원래 하나의 민족이었다는 단순한 사실이 가장 힘있는 통일의 저력인 것입니다.

위하라고 교육받아도 어쩔 수 없이 우리 가슴 깊이에는 뜨거운 핏줄이 서로 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의 민족이었다는 단순한 사실이 가장 힘있는 통일의 저력인 것입니다. 아무도 이러한 힘을 막지는 못합니다. 물론 우리 노동자들도 가장 민족애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부모님은 농민, 소작인으로 보부상으로 또는 노비와 몰락한 양반으로 민족의 수난을 함께 겪어온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분단으로 인해 득을 본 사람들보다 우리 노동자들이 훨씬 민족적 양심이 강합니다.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다친 동료들을 병문안하는 마음을 지난 순박한 노동자들이 불로소득으로 혼자 골프나 치러 다니는 사람들보다는 몇 배 둑포의 아픈 가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경제적 실리를 따지고 이해득실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보편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도 이득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판단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통일비용이 많이 든 통일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통일을 미루자고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실리와 이해득실로 보아도 우리는 당연히 통일을 해야합니다. 통일이 되면 한 대에 수천억씩이나 하는 미사일과 전투기를 살 필요가 없어집니다. 국가재정의 30%에 이르는 국방비가 사회복지비에 쓰여진다면 그 애말로 우리 노동자들이 머리띠 매고 요구하는 문제들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60만에서 백만에 이르는 대규모의 군대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그 기간에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일찍부터 경제활동을 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멀리 호주에서 비싼 수송료를 주고 질광석과 석탄을 사들일 필요가 없어져 공업도 정상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양질의 자자

자원이 북에는 개발되지 않은 채로 많이 묻혀있습니다. 나라경제가 부강해지면 회사의 운영도 밝아지고 사장들이 날마다 적자타령을 하지 않아도 되니 노사간의 대화도 원활해질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외채가 1000억불을 넘어서고 1인당 부채는 세계 1위가 되어있습니다. 전쟁위협이라는 특수한 나라상황을 평계로 소수의 권력자들이 경제를 이리저리 마음대로 해왔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통일이 되면 이런 비상식적인 부정비리 정치인들이 발디딜 틈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를 빨갱이 운운하며 누명을 씌우는 것도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어느 모로 보아도 통일은 우리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줍니다.

이미 한반도 통일문제는 국제적 관심거리로 되어있습니다. 4자회담이니 뭐니 하며 여기저기서 실질적인 문제로 통일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수로 지원 협정에 따라 남쪽의 노동자와 기술진이 1997년안에 북에 들어가 공장도 짓고 터도 낚개 됩니다. 이미 서신왕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 분단 반세기만에 더진 물꼬입니다. 한 번 터진 물꼬는 그 도량을 더욱 넓히며 더욱 거세게 흐를 것이 분명합니다. 오랫동안 전쟁상황하에 있었던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한 남북미간의 협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남북간에는 이미 “화해와 교류 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가 채택되어있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주석의 서거와 일련의 사건으로 인하여 잠시 경직되어있는 남북관계도 다시 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50년간 켜켜이 쌓인 불신과 긴장이 곳곳에서 돌출하고 있기도 합니다. 당장 작년만 하더라도 잠수함 사건으로 남과 북이 서로 충돌을 하고 여러명이 죽었습니다. 그럴 때는 마치 통일이 요원한 것처럼 절망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휴전선에서 서로 충격전을 벌였습니다. 충격전이 있던 날 미하원 본회의에서는 북을 돋는 일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자는 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통일되면 무기를 팔아먹는 외국의 군수사업자들과 일부 보수 정치인들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통일을 늦추려고 갖은 방해를 일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로 흐르는 역사의 강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8.15해방 52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일본천황의 항복방송과 이승만과 김일성이 연단에서 연설하는 다큐멘터리를 자주 봅니다. 8.15는 민족

해방의 환희와 민족분단이라는 커다란 좌절을 동시에 안겨주었기에 우리는 남다르게 이날을 맞이합니다. 분단된 날로부터 우리 동포들은 8·15광복절을 민족통일의 날로 만들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범민족대회와 민족평화대회 남북 인간띠잇기운동 등 이때가 되면 여기저기서 활발하게 통일을 위한 봄짓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1997년 8월 15일에도 어김없이 노동자, 농민, 여성, 종교인 등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족적인 하나님의 통일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동자들이 이런 통일의 장에서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통일이 성큼 다가오고 노동자와 우리 모두가 살길이 열립니다. 서슬 펴린 박정희, 전두환의 탄압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 노동자들이 통일운동을 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문익환 목사님과 같은 종교인들과 입수경학생들이 통일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해 전부터 이제 노동자들도 본격적으로 통일의 길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천지역의 노동자들은 백두라는 통일단체를 만들어 통일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통일운동이 전국 각지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사실 52년의 세월동안 분단으로 인하여 가장 고생한 아들은 우리 노동자들입니다. 그리고 통일을 이를 민족 구성원의 대다수도 노동자들입니다. 이제 우리 노동자들이 나서서 통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그렇듯 옳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통일운동을 하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위사업장별로 통일이라는 주제로 토큐화를 개최하는 것도 아직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여전히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대하여 노동조합 활동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것입니다. 임금인상문제, 해고사복직문제, 복지문제, 경영참여문제 등이 우리 노동조합들의 관심거리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더불어 성숙한 노동조합들은 서서히 사회적 문제에도 관심을 둘리고 있는 줄로입니다. 노동운동이 발전하면 밀접할수록 나라와 민족의 문제 사회적문제등도 노동조합의 주요한 활동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까지는 많은 노력, 특히 의식적인 노력이 끊임없이 필요할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통일운동은 무엇보다 먼저 느낀 이들이 애써 실천하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는 빼약卑 아래 우리 노동자들의 통일의 땀방울이 하나둘씩 영글기를 기대해봅니다. ♦